

82 Come Back Home 2 - Medici & Renaissance 2



8 폰테 베키오 중세에 만들어진 다리다. 이탈리아어로 오래된 다리를 의미한다. 다리 2 층은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 궁전을 연결하는 바사리 통로의 일부다. 다리 위에는 수많은 보석상, 미술품 거래상과 선물 판매소가 들어서 있다.

* 상가는 모두 화려한 3 색의 금이다. 가격표를 보고는 모두 야! 하고 지나간다. 아르노 강변으로 내려가야 다리 2 층의 집무실과 궁을 연결하는 통로가 제대로 보인다. 삶은 때때로 길에서 비켜나서 봐야 전체가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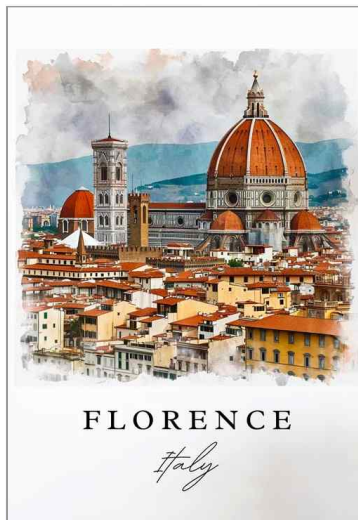
82

9 아르노 강 피렌체를 흐르는 강이다. 산책로이며 석양에 폰테 베키오를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다. 단테가 베아트릭체를 만난 곳이다.



* 단테를 모르는 것은 힘들다. 정작 읽은 사람은 희귀하다. 신곡을 소설로 아는 사람도 많다. 대 서사시라는 표현은 비유법이 아니다. 시집이다. 단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옥으로 좋아하는 베아트릭체 만 천국에 둔 아주 편협한 사람이다.

10 미켈란젤로 언덕 광장에서 피렌체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. 피렌체를 알리는 사진의 90 % 는 이곳에서 촬영된 것이다. 피렌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트 장소다.



* 가이드 투어는 2 가지 길이 있다. 천국의 계단 - 안내를 잘 따르고 폰테 베키오에서 팔찌를 구입하기라도 한다면 버스로 광장으로 이동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젤라토를 즐기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. 지옥의 문 - 설명을 잘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하면 걸어서 언덕을 오르 고 피티 궁과 보볼리 정원까지 땀 뻘 아래 구석구석 모두 보는 알찬 투어를 경험 할 수 있다. 안내가 너무 전문적이라 불평을 할 수도 없다. 교훈 학교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.

11 피티 궁전 피렌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궁전이다. 메디치의 경쟁 가문이었던 피티 가문이 건축하였다. 뒤에 메디치 가문으로 매각되어, 한때 이탈리아 왕국의 왕궁으로 쓰였다.



* 지옥의 문을 힘껏 두드리지 않고는 스스로 피티 궁전과 보볼리 정원을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. 이미 시내에서 다리 힘이 풀렸기 때문이다. 그러나 조용히 피렌체를 가슴에 담아 갈 수 있다.

12 공화국 광장 이탈리아에는 공화국 광장이라는 이름의 광장이 많다. 모두 반도의 통일 기념 광장이다. 황금색 문들 사이에 광장이 있다.

*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여행을 모두 정리했다면 이제 낭만을 찾아갈 시간이다. 버스킹 이상의 수준 높은 재즈와 전통공연이 펼쳐진다.

13 피렌체의 성당 들 피렌체 4 대 성당 모두 보기, 맛집 도장 찍기 같은 이런 여행기를 본다. 모범생의 답안이다. 그러나 많이 아쉽다.

* 피렌체는 수많은 작은 성당들이 있다. 어느 비오는 날 우연히 베네딕트 수도회 성당에 들어갔다. 홀로 들었던 오르간 연주를 잊지 못한다. 신의 은총은 명동 성당에만 있지 않다.

* 집안의 가보를 마당에다 둘까? 조각상들은 복제품이다. 원본은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.



ps 피렌체 피티 궁에서 최초로 남성복 전시회가 열렸다. 6 월이 되면 거리 곳곳에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이 넘쳐 난다고 한다. 아니다 피렌체는 항상 멋진 남성들이 넘쳐난다.